



현혈의 집 '볼런티어데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는 13일 전남대 현혈의 집에서 '대한적십자사 V (Volunteer)원정대가 제안하는 해피 밸런타인, Volunteer day' 행사를 열었다. '볼런티어데이'는 밸런타인데이에 젊은 연인들이 초콜릿을 전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봉사 기쁨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규정도 모른 채 심사위원에 출품해달라”

남구청 '미숙 행정' 비난

남구 신청사 걸릴 5억대 지역작가 미술품 선정 난맥상

출품 심사위원들 “작품 제한 조레 고지도 못받았는데...”

광주시와 남구청의 허술하고 미숙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남구청 신청사에 내걸 5억원 상당의 미술품작품을 추천하면서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출품을 제한하고 있는 미술작품 심사위원들에게 출품을 요청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이같은 규정을 작가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다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혼선도 빚어졌다. 13일 광주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오는 3월 리모델링 뒤 문을 여는 남구청 신청사에 설치할 지역 작가들의 미술품 69점을 추천, 광주시에 심사를 의뢰하면서 광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시켰다가 심의 과정에

서 발견, 뒤늦게 제외했다. 광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23조 2항)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인 사람은 재직기간 중 광주광역시에서의 건축물 미술품작품에 대한 출품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추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한 뒤 작품을 추천하고 심사를 의뢰해야 하지만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작가들에게 출품을 요청했다. 남구청은 지난 2011년 위촉된 광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조례가 지난해 7월 바뀌어 내용을 알지 못했고 광주시 미술장식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이같은 규정을 포함한 조례가 지난해 7월 개정·공포된 뒤 시행중인데도, 이 과정에서 해당

심의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는 등 매끄러운 행정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시측은 “해당 조례가 개정·공포되면 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당시 인사 등으로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있던 김모씨 등 4명은 남구 등의 허술한 행정으로 관련 제한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출품했다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들은 지난 7일 열렸던 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출품했던 심의위원 등은 “광주시에서의 출품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바뀐 줄도 몰랐고 남구청이 출품하라고 해 상당시간 공을 들여 내놓았는데 모리, 이 지역이 규정을 지키게끔 만들던 자기소 또는 도기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암=문명선기자 moon@/영세열기자 hot@kwangju.co.kr

‘층간소음’ 기준 만들어 이웃간 분쟁 줄인다

정부,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어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환경부와 긴급 회의를 열어 지난달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법제처 심의를 앞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등을 규정한 것이라면 주택법 개정안은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별도의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국토부·환경부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소음기준을 만들어 단독 고시하도록 했으나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바뀐다. 개정안에는 또 입주자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쿡쿡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동물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주거생활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이러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소음기준 마련 등과 주민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당초 발의된 6개월보다 긴 1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고시되는 주택건설기준과 함께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연철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0분 해질 18시 14분 달돋이 09시 14분 달지 22시 28분

구름 낀 하늘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음	-3/7℃
목포	구름많음	-2/7℃
여수	구름많음	0/7℃
나주	구름많음	-4/7℃
완도	구름많음	-2/8℃
구례	구름많음	-5/8℃
강진	구름많음	-5/7℃
장흥	구름많음	-5/8℃
순천	구름많음	-5/9℃
영광	구름많음	-4/6℃
진도	구름많음	-3/7℃
군산	구름많음	-4/6℃
남원	구름많음	-5/7℃
홍산도	구름많음	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m 관심 매우높음 매우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관심 매우높음 매우높음
 먼바다 북서~북 0.5~1.5m 관심 매우높음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목포 04:45 09:51
 먼바다 북~북동 0.5~1.0m 17:02 22: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여수 11:41 05:18
 먼바다 북서~북동 1.0~1.5m 23:59 17:42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0/4	-3/5	-2/8	5/6	-3/1	-5/3

‘잇몸병’ 치은염 환자 800만명 육박

40~50대가 절반...스케일링으로 치태·치석 제거 바람직

염증 때문에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치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한 해 약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치은염(질병 코드 K05) 진료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환자는 799만6000명으로 1280만명인 급성기관지염(J2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관련 진료비는 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과 비교해 환자수와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7.3%, 11.9% 늘었다. 연령별로는 2011년 기준 50대가 181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159만명

40대까지 포함해 40~50대가 전체 치은염 환자의 42.5%를 차지했다. 치은염은 이와 잇몸 경계에서 시작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하는데, 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인 치태(플라크) 속 미생물이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은염이 있으면 잇몸 색이 검붉게 변하면서 피가 나거나 붓고, 심하면 궤양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스케일링을 통해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우리 국민의 상당 수가 적극적으로 스케일링 등 치아 및 잇몸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영암서 공납용 분청사기 출토

학산 가마터서 전라도 최초... '仁壽' 새겨진 파편 등

영암에서 '仁壽(인수) 명(銘)'이 새겨진 분청사기 전남·북지역에서는 최초로 출토됐다. 영암군은 13일 학산면 상월리 분청사기 가마터를 발굴 조사한 결과 분청사기 가마터 1기, 솟가마터 1기, 근대 용관 1기, 민도 4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청사기 가마 크기는 잔존길이 248cm, 너비 144cm, 잔존 높이 12cm, 바닥 경사 15도이다. 출토 유물은 인화문(印花文·도장 등 도무늬 무늬를 찍는 방법) 등으로 새긴 분청사기 조각들이다. 영암군은 '司(사)'와 '仁壽'가 새겨진 분청사기가 수습된 점으로 미루어, 이 지역이 공납용 자기를 만들던 자기소 또는 도기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암=문명선기자 moon@



'仁壽' 새겨진 분청사기.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가마터.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바다의 향기를 가득 담은 푸점식 바다향

☎ 062) 511-2303

A코스 15,000원	C코스 30,000원
B코스 20,000원	스페셜 40,000원

(1인 기준 2인 이상)

정식 특별 할인 런치정식 15,000원

동태탕 6,000원
특산매운탕 10,000원
회덮밥 6,000원
생선초밥 10,000원
쌈밥 7,000원
굴비정식 15,000원

위 치: 구, 용봉동 엘리시아 사브사브

엘리시아 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빔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자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